

2007년 7월 8일 서울시 9급 공채시험

국어 해설 및 정답

송태웅 (광주한빛고시학원/남부행정고시학원)

1. 다음 한자어들의 독음이 바르게 된 것을 고르라.

嗅覺, 杳然, 恥辱, 痛恨

- ① 취각, 향연, 치욕, 통한
- ② 후각, 묘연, 치욕, 통탄
- ③ 취각, 향연, 후욕, 통한
- ④ 후각, 묘연, 굴욕, 통한
- ⑤ 취각, 묘연, 굴욕, 통한

정답 : ②

해설 : 嗅覺(맡을 후, 깨달을 각), 杳然(어두울 묘, 그러할 연), 恥辱(부끄러워할 치, 욕될 욕), 痛恨(아플 통, 한할 한)

2. 아래 시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江碧鳥逾白 ㅁㄹㅁㅣ ㅍㄹㅁㅣ 새 더욱 ㉠회오,
山青花欲然 ㅍㅣㅎㅣ ㅍㅣㄹㅣㅎㅣ ㅁㅣ 비치 ㅍㅣ ㅍㅣ는 ㄷㅅ도다.
今春看又過 ㅁㅣ 보ㅣ 본ㄷ ㅍㅣ 디나가ㄴㅣ,
何日是歸年 ㅁㅣ는 나ㅣ 이 도라갈 ㉡회오.

- ① 두보의 시를 번역한 것이다
- ② 주된 정서는 애상이다
- ③ 제재는 봄 경치다
- ④ 주제는 자연의 아름다움 예찬이다
- ⑤ 밑줄친 ㉠은 현대국어로 '회고'이며 밑줄친 ㉡은 현대국어로 '해인가'이다

정답 : ④

해설 : 이 시는 봄이 와도 고향에 못 가는 안타까움 즉, 고향에 대한 그리움[鄉愁]를 노래한 작품이다.

3. 다음 단어들의 표기가 틀린 것은?

- ① 건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 ② 넉넉치 않은 가정 형편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다.
- ③ 우산을 받쳐 들고 길을 갔다.
- ④ 어머니의 속을 씩이고 말았다.
- ⑤ 술을 체에 받치고 있다.

정답 : ②

해설 : ② '-하다'가 붙는 말이 줄 때에 '-하' 앞에서 안울림소리로 끝나는 경우 '-하'가 통째로 빠지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다'가 '넉넉지 않다'로 줄고, 더 줄이면 '넉넉잖다'로 줄게 된다. 따라서 '넉넉지 않은'이 옳은 형태이다.

4. 다음 단어들이 한글맞춤법으로 옳게 된 것은?

내 친구는 유년 시절에 아버지를 ㉠여위고 아주 힘들게 대학 생활을 했다. 온갖 ㉡허드레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마련하는가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까지 받아 가며 힘들어도 ㉢오뎅이처럼 일어섰다. 그런데 막상 졸업을 하자 ㉣듣든 대로 취직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의기소침해 있는 그 친구의 모습에 마음이 몹시 안타깝다. 그 친구가 당당히 취업통지서를 들고 내게 달려와 축하주 한 잔 사주는게 나의 간절한 ㉤바램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정답 : ③

해설 : ①여의고 ②허드렛일 ④듣던 ⑤바람

5. 다음 시조에 대한 해설로 틀린 것은?

재 너머 成勸農(성권룡) 집의 술 닉닷 말 어제 듯고,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테고,
 아히야, 네 勸農(권룡) 겨시나, 鄭座首(정좌슈) 왔다 흥여라.

- ① '지즐테고'는 놀러탄다는 뜻이다.
- ② '언치'는 안장 밑에 까는 담요를 뜻한다.
- ③ 전원의 향취가 시 전체에 무르익어 있다.
- ④ 술과 멋을 좋아하는 작가의 품성이 잘 제시되고 있다.
- ⑤ 세련되고 우아한 시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정답 : ⑤

해설 : 술과 멋을 좋아하는 지은이의 풍류와 멋스러움이 토속적인 농촌의 정취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전편을 통해 생동감이 넘쳐 흐르며,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멋스럽게 구사하는 송강의 언어 능력이 유감 없이 발휘된 작품이라 하겠다.

6. 다음 단어들의 발음이 옳게 된 것은?

- ① 소년의 미소가 밝고[발꼬] 귀여웠다.
- ② 바야흐로 봄동산에 꽃이[꼬시] 만개하였다.
- ③ 발을 [바출] 가는 황소의 몸이 무거워 보인다.
- ④ 한 시간 동안 벌을 서고 나니 무릎이[무르비] 저렸다.
- ⑤ 허수아비가 들녘에서[들러게서] 참새를 쫓고 있다.

정답 : ①

해설 : ②[꼬치] ③[바틀] ④[무르피] ⑤[들려케서/들력케서]

7. 다음 중 남녀 간의 사랑을 읊은 고려가요가 아닌 것은?

- ① 서경별곡
- ② 이상곡
- ③ 쌍화집
- ④ 만전춘
- ⑤ 유구곡

정답 : ⑤

해설 : '유구곡(維鳩曲)'은 비둘기는 울기는 하지만 겁이 많아 잘 우는 빠꾸기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빠꾸기가 더 좋다는 것으로, 눈치만 보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당대 신하들의 비겁함을 예종 자신이 풍자한 노래이다.

8. 다음 작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효석 : '돈', '산', '메밀꽃 필 무렵'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 본능의 순수성을 그려냈다.
- ② 김유정 : '금 따는 콩밭', '땡볕', '봄·봄' 등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을 비판적으로 나타내었다.
- ③ 김동리 : '무녀도' '바위' '황토기' 등을 통해 사라져가는 것들의 세계를 주로 형상화했다.
- ④ 김정환 : '사하촌' '모래톱 이야기' '수라도' 등을 통해 농민의 저항을 주로 형상화했다.
- ⑤ 계용묵 : '백치 아다다', '병풍에 그린 닭이', '마부' 등을 통해 전통적 삶의 세계를 주로 그려냈다.

정답 : ②

해설 : 김유정은 주로 강원도 산골에 사는 농민들의 우직함, 순박함 등을 그려냈고, 식민지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을 비판적으로 나타낸 작가는 염상섭이다.

9. 속담과 한자성어가 관계 없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티끌 모아 태산 - 積土成山
- ②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 貧則多事
- ③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 甘香苦吐
- ④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 艱難辛苦
- 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 - 走馬加鞭

정답 : ④

해설 : '간난신고(艱難辛苦)'는 어려움을 겪으며 고생함이라는 뜻이다.

10. 아래 표기법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 ① 금새 짜증이 났다.
- ② 그의 행동에 어의없다.
- ③ 이 점을 엄두해 두고 행동하십시오.
- ④ 간이 안맞으니 한 움큼 소금을 넣으시오.
- ⑤ 그 사람 표정이 정말 희안했다.

정답 : ④

해설 : ④ 움큼 : 손으로 한 줌 움켜질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①금새 : 지금 바로. '금시에'가 줄

어든 말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된다. ②어이없다. ③염두(念頭)에 두고 ⑤희한(稀罕)했다.

11. 기미독립선언서 아래 <보기> 문장 중에서 주제어구를 바르게 찾은 것은?

舊時代(구시대)의 遺物(유물)인 侵略主義(침략주의), 強權主義(강권주의)의 犧牲(희생)을 作(작)하여 有史以來(유사이래) 累千年(누천 년)에 처음으로 異民族(이민족) 箝制(겸제)의 痛苦(통고)를 嘗(상)한 지 今(금)에 十年(십 년)을 過(과)한지라. 我(아) 生存權(생존권)의 剝喪(박상)됨이 무릇 幾何(기하)이며, 心靈上(심령상) 發展(발전)의 障(장애)됨이 무릇 幾何(기하)이며, 民族的(민족적) 尊榮(존영)의 毀損(훼손)됨이 무릇 幾何(기하)이며, 新銳(신예)와 獨創(독창)으로써 世界文化(세계 문화)의 大潮流(대조류)에 寄與補裨(기여보비)할 機緣(기연)을 遺失(유실)함이 무릇 幾何(기하)인노.

- ① 舊時代의 遺物
- ② 異民族 箝制의 痛苦
- ③ 生存權의 剝喪됨
- ④ 民族的 尊榮의 毀損
- ⑤ 機緣을 遺失함

정답 : ②

해설 : 이 단락은 ‘이민족 겸제의 통고’ 즉,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중심 어구이다.

12.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로마자 표기가 바른 것은?

- ① Myeongnyun-dong, Jongno-gu, Seoul, Korea
- ② Myeongnyun Dong, jongno-gu, seoul, korea
- ③ Myeongryun dong, jongro-gu, seoul, korea
- ④ Myeongryun Dong, jongro-gu, seoul, korea
- ⑤ Myeongryun-dong, jongro-gu, seoul, korea

정답 : ①

해설 : 명륜동[명륜동], 종로구[종로구]로 발음되고, ‘동’과 ‘구’는 행정구역상의 단위이므로 붙임 표를 붙여 표시한다.

13.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로 이루어진 통합식 구성 형식을 취하고 있는 소설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액자소설
- ② 역사소설
- ③ 피카레스크소설
- ④ 1인칭 소설
- ⑤ 대화체소설

정답 : ①

14. 보기에 적용할 수 있는 비평적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시는 현세적 삶을 살아가는 젊고 어여쁜 여성의 번뇌위에 종교적 지향성을 포괄으로써 번뇌의 종교적 극복과 지양이라는 주제를 밀도 있게 제시하려는 시인의 내면이 또렷이 드러나 있다

- ① 반영론
- ② 표현론
- ③ 효용론
- ④ 객관론
- ⑤ 형태론

정답 : ②

해설 : 조지훈의 ‘승무’에 대한 간략한 평인데, ‘번뇌의 종교적 극복과 지양이라는 주제를 밀도 있게 제시하려는 시인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품을 작가의 관점에서 보려했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15. 다음 글을 읽었을 때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한자성어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으레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인데,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 ①㉠ 허장성세(虛張聲勢)
- ②㉡ 교언영색(巧言令色)
- ③㉢ 자신만만(自身滿滿)
- ④㉣ 안분지족(安分知足)
- ⑤㉤ 수주대토(守株待兔)

정답 : ⑤

해설 : ⑤ ‘수주대토(守株待兔)’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어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6.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 ① ‘새해’라는 추상적 언어를 구체어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새해의 눈시울’과 ‘승천한 눈물들’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
- ③ ‘백설’을 ‘승천한 눈물’의 결정체로 보고 있다.

- ④ '순수의 얼음꽃'은 '백설'을 동격화하고 있다.
- ⑤ 새해를 맞는 첫날에 눈이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답 : ②

해설 : 대구를 이루려면 앞과 뒤의 표현이 문법상 구조로나 의미상 구조가 대등해야 한다. 즉, 앞이 'A의 B'형태이면 뒤도 'A의 B' 형태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새해의 눈시울'에서 '새해의'는 '체인+관형격조사'의 형태이지만, '승천한 눈물들'에서 '승천한'은 동사 '승천하다'의 관형사형이 관형어의 형태가 되어서 앞의 표현과 문법상 대등하지 못하다. 의미상으로 보면, '새해의 눈시울'은 화자가 흘린 눈물이다. 이 눈물이 승천해서 '승천한 눈물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동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동질적인 것이 아니다. 화자가 흘린 눈물 중 순수한 것만이 정신적으로 보다 고양되어서 '승천한 눈물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① 이 시는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이미지를 지닌 사물로부터 어떤 인식과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그에 바탕하여 삶의 자세를 노래한 다음, 이를 다시 구체적인 이미지를 승화시켜 내는 구성을 지니고 있다. 즉, 삶에 대한 추상적 관점을 머리채 긴 바람, 은총의 돌층계, 섭리의 자갈밭, 순수의 얼음꽃 등의 시어를 동원하여 시각화시키고, 이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추상을 구체화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다.

17. 단어형성법이 다른 하나는?

- ① 여닫다
- ② 드높다
- ③ 낮추다
- ④ 휘감다
- ⑤ 사랑스럽다

정답 : ①

해설 : ① 합성어, ②드('강세'접두사)+ 높다 ③낮+ 추('사동'접미사)+ 다 ④휘('강세'접두사)+ 감다 ⑤ 사랑+스럽(접미사)+ 다. ②③④⑤는 접사가 개입된 파생어이다.

18.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 ① 아이들은 어떤 고난도 참아 냈다.
- ② 다음에서 틀린 것을 찾아 보아라.
- ③ 새로 알게 된 사항을 수첩에 적어 놓았다.
- ④ 오늘 목격한 장면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본 대로 말해주길 부탁한다.
- ⑤ 아이들이 떠들어 대고 있다.

정답 : ②

해설 : ② '찾아보다'는 '원하는 정보를 구하거나 알기 위하여 대상물을 검토하거나 조사하다.'는 뜻의 한 단어이다. (예)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싶으면 사전을 찾아보아라./고전 음악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으면 음악 관련 서적을 폭넓게 찾아보아야 한다. ①참아 내다 ; (동사 뒤에서 '-어 내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③ 적어 놓다 ; (동사 뒤에서 '-어 놓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④기억해 두다 ; (동사 뒤에서 '-어 두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⑤떠들어 대다 ; (동사 뒤에서 '-어 대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19. 아래 문장에 각각 들어갈 한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어휘사용에 있어서 큰 ()를 차지한다.
- ② 여러가지 새로운 기구의 신설과 ()
- ③ 원 뜻을 살려서 ()를 만들어 쓰는 것도 신어 증가의 한 요인이다.

- ① 比重, 開閉, 意譯語
- ② 比重, 改廢, 意譯語
- ③ 批重, 改廢, 疑譯語
- ④ 批重, 開閉, 義譯語
- ⑤ 秘重, 開閉, 義譯語

정답 : ②

해설 : 比重(견줄 비, 무거울 중)-다른 사물과 견주어지는 사물의 중요성, 開閉(열 개, 닫을 폐)-제도나 기구 등을 고치거나 폐지하는 것, 意譯(뜻 의, 통역할 역)-개개의 단어, 구절에 너무 구애)되지 않고, 전체의 뜻을 살리는 번역

20.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살쟁이
- ② 장사치
- ③ 수강아지
- ④ 어질머리
- ⑤ 시러베아들

정답 : ④

해설 : ④ ‘어질머리’는 ‘어질병’의 잘못 ①살쟁이-샅, ②장사치(○)-장사아치(×), ③수≡+강아지 →수강아지, ⑤ 시러베아들(○)-실업의아들(×) ; ‘실없는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